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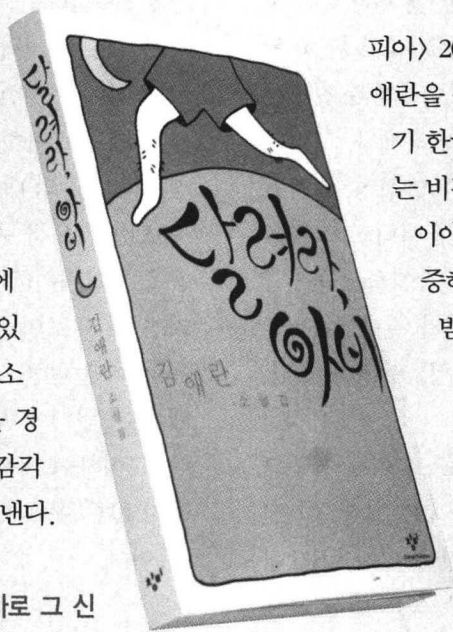
삶의 진경을 파헤치는 '젊은 문학' 을 위해

글_고명철 문학평론가, 평운대 교양학부 교수

한 동안 한국소설계가 조용하다 싶더니, 웬걸, 한 신예작가의 첫 소설집을 놓고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화젯거리가 없어 시큰둥했던 언론의 문학 담당 기자들은 괜찮은 먹잇감을 눈앞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다. 비평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의 소설과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포착되었을 경우 비평가들은 그 특유의 동물적 비평 감각에 의해 어떤 '새로움'의 징후를 발견해낸다.

김애란은 최근 한껏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신예작가다. 그는 기성 작가들처럼 문예지 또는 신춘문예의 신인상이란 등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메이저 문예지에 곧잘 작품을 발표하면서 한국소설계의 기린아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다. 제1회 대신대학문학상(2002) 수상작인 단편 〈노크하지 않는 집〉이 계간 《창작과비평》(2003년 봄호)에 실리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지난 해 한국소설계에서 최연소 '제38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니, 한국소설계가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일까. 김애란의 첫 소설집 《달려라, 아비》(창비, 2005)가 발간되자, 그의 소설세계에 대해 제출된 비평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인 양 한국소설계에서 '물건'이 나왔다고 떠들썩하다. 가령, "한국문학은 이제 《달려라, 아비》를 통해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현식,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리토



《달려라, 아비》 김애란 지음 | 창비 | 268쪽 | 값 9,500원

피아) 2006년 봄호, 336쪽)라는 언급 속에서, 김애란을 통해 20세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21세기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고자 하는 비평의 욕망을 마주친다. 말하자면 김애란이야말로 21세기 한국문학의 새로움을 보증해줄 수 있는 기대주로서 각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분명, 김애란에게 쏟아지는 이러저러한 비평적 찬사는 곱씹을 만하다. 그만큼 한국문학은 김애란의 소설에서 보이는 어떤 '젊음'의 피를 수혈받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국문학이 '젊은 피'를 수혈받지 못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젊은 피는 지속적으로 한국문학에 공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문학은 '젊음의 과

잉' 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들려온다.

나는 한국문학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비록 '젊음의 과잉'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젊은 피'가 지속적으로 수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붉은 피가 아니라, 선홍색의 싱그러운 피가 한국문학의 곳곳에 스며들어 힘차게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다는 데 당당해야 하며, 젊다는 데 치열해야 하며, 젊다는 데 솔직해야 한다. 우물쭈물하거나, 노회하거나, 비굴한 것은 젊음을 육보일 따름이다.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를 읽는 내내 나는 '한국문학의 젊음'에 대해 숙고해보았다. 《달려라, 아비》에 수록된 9편의 단편을 읽어가면서, 한국문학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

부로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김애란 또래 젊은이들이 세계와 대하는 방식을, 김애란 특유의 '내용형식'이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층위로 뒤엉킨 세계에 뒤섞이지 않고, 냉담하게 세계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중문이나 복문이 아닌 단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김애란은 그 복잡성과 다면성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 이 세계를 자의적으로 펴고 구부리지 않는다. 하여 그는 세계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최대한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열거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세계를 이루는 것들은 그렇게 서로들 사이에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존재하고, 소멸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이 그 빈 자리를 메꾸고, 사라지고, 이러한 관계들로 병치되어 있을 따름인가. 이 세계에서 상처받고, 상처받은 존재들을 위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유머감각의 도움을 받아 지리멸렬한 삶을 견디며 살아갈 따름인가.

《달려라, 아비》에서 곧잘 등장하는 아버지란 존재가 그렇다. 아버지의 부재를 문제의식으로 삼은 소설은 한국소설사에서 솔하게 존재하며, 한국소설사에서 성취처럼 빛나는 문제작 또한 없지 않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한국소설사는 아버지의 부재와 직간접 관련을 맺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기존의 소설과 별다른 것도 없는 문제의식을 다룬 김애란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버지에게 대한 또 다른 소설적 탐구의 과정이다. 아버지의 부재 자체를 다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를 김애란이란 신예작가의 감각과 인식에 의해 어떻게 탐구해 들어가는지, 그 소설적 진실에 육박해 들어가는 과정의 젊은 패기를 맛보고 싶었다. 그냥, 새롭고 싱그러운 젊음의 패기가 아니라, "진담의 세계이며, 범인(凡人)들의 세계에다가, 오해의 세계" (《종이 물고기》, 194쪽)를 온몸으로 부딪치는 '순간', 활짝 피어난, 하여 젊음이 당당하게 포착한 삶의 비의성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김애란의 작품들에서 젊음을 확인했듯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젊음 특유의 소설적 진실의 과정에서 발산되는 젊은 패기와, 그 패기에 의해 몇몇이 발견한 삶의 비의성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대신 그의 소설 곳곳에서 산포되어 있는 "한번도 지루하지 않았" (《사랑의 인사》, 143쪽)던, 각종 범인들의 자질구레한 일상들과 연루된 이야기들을 만났다. 여기서 아버지의 부재를 다루

야 하는 이렇다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지리한 일이다. 기실 작가는 작품 곳곳에서 아버지를 다양한 방식에 의해 탐구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전 세계 곳곳을 떠돌며 다니고 있는 그 자체를 유희적으로 즐길 따름이다. 아무리 작가가 한국소설사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강박적 탐구로부터 비껴나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피해서 안 될 것은 그만이 탐구해내어야 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 무엇이다.

물론 문학비평가 김동식은 작품의 해설에서 "정신적 상처의 기원(아버지)을 유목시키는 독특한 상상력은, 김애란이 보여준 한국문학의 새로운 풍경" (249쪽)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칫하였다. 최근 유행하듯이, 아버지가 유목적 존재(혹은 노마드적 존재)이기 때문에 김애란의 상상력이 독특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김애란 특유의 유목적 상상력에 의해 유목시키기 때문에 독특한 것인지 이것은 김애란 소설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평가하는 데 간과해서 안 될 성질의 문제다. 어쩌면 이 두 문제는 서로 깊숙이 연동되어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물어야 할 것은 김애란의 유목적 상상력에 의해 아버지의 부재가 제대로 탐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나는 김애란 소설 역시 1990년대 이후 한국소설의 주류적 성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물나게 보아오지 않았는가. 1990년대 이후 일상성의 밑자리에서 미시적 욕망들을 탐구하였고, 타자(성)들에 대한 집요한 물음을 던졌고,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넘나들고 착종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였다. 나는 행여 김애란의 소설이 "작은 우연들과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 (《사랑의 인사》, 148쪽)에 갇히고, 그 의미들에 자족하는 알리바이에 맹목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것은 김애란의 소설에 비판적 애정을 갖기에 더욱 그렇다. 이후 그의 소설이 한국문학을 객토했 수 있는 젊음의 패기로 거듭나, 그 싱그러운 '젊은 문학'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중요한 것은 유목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활달한 상상력에 의해 탐구되어야 할 삶의 진경이다. ❦